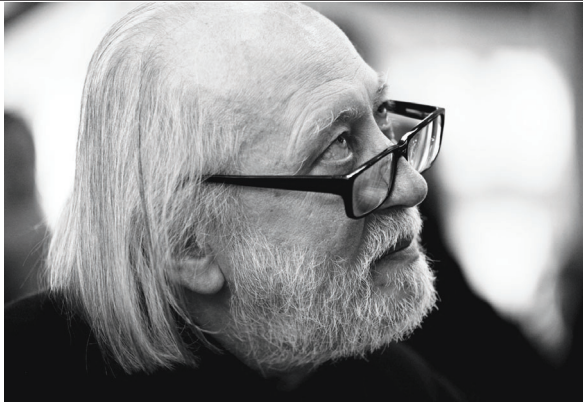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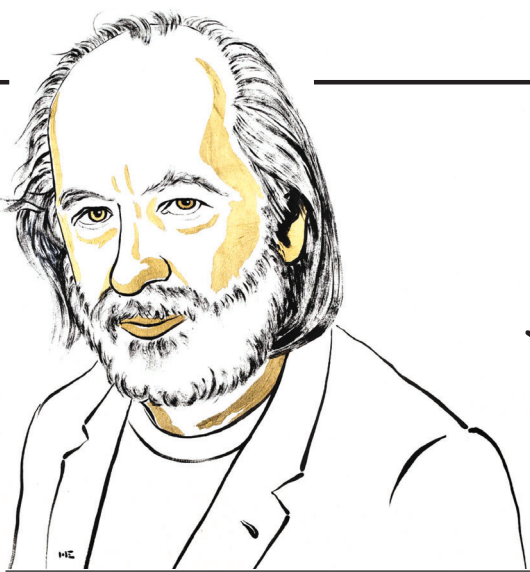


크리스너호르카이 라슬로 작품을 만나다

2025
노벨문학상

László Krasznahorkai



지난 9일(현지시간) 헝가리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크리스너호르카이 라슬로(71·사진)가 올해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된 후 그의 도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른바 '노벨상 특수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지난해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수상으로 노벨문학상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번 헝가리 작가 선정은 독자들의 동유럽 문학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12월 에스24와 알라딘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크리스너호르카이의 대표작 '사탄탱고'가 실시간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다른 대표작인 '저항의 멜랑콜리'를 비롯해 '세계는 계속된다', '벵크하임 남작의 귀향' 등도 상위권에 올라 있다.

특히 라슬로의 데뷔작이자 대표작 '사탄탱고'는 수상 발표가 전해진 이후 에스24 국내도서 실시간 1위에 올랐으며 올해 연간 판매량의 약 12배를 기록했다. 또한 수상 선정 소식 직후 12시간 동안 라슬로 전체 판매량도 올해 연간 판매량의 약 3배가 증가했다.

알라딘에 따르면 수상 전 한달간 크리스너호르카이 작품의 국내 번역서 판매량은 약 40부 수준에 머물렀으나 발표 직후 1800부로 증가했다.

이렇게 노벨문학상 작가 라슬로에 대한 국내 독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그의 문학 세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라슬로의 노벨상은 헝가리 작가 출신으로는 지

난 2002년 임레 케르테스 이후 두번째다.

세계 문학계의 라슬로에 대한 평가는 '목시록 문학의 거장'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이다. 그의 작품 속에 종말론적인 요소가 투영돼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한림원은 이번 노벨상 선정에 대해 "종말론적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하는 그의 강렬하며 선구적인 전작(全作)에 상을 수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크리스너호르카이는 카프카에서부터 토마스 베른하르트까지 이르는 중부 유럽의 위대한 작가로 부조리, 기괴한 과잉이 특징"이라며 "그럼에도 소설에는 이보다 더 많은 요소가 존재하며 사색적이고 정교하게 조율된 어조를 구사해 동양을 바라보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라슬로가 국내 독자들에게도 익숙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15년 '사탄탱고'로 맨부커상(현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했을 때이다. 지난 2016년 한강의 맨부커상 수



한림원 선정 이유 “종말론적 공포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 증명”

헝가리 출신...2015년 맨부커상 수상 등 매년 노벨상 유력 후보

상보다 1년 앞서 영예를 안았다. 라슬로는 꾸준히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는 등 노벨상 후보로도 매년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2015년 맨부커상 심사위원장인 영국 작가 머리나 위너는 "크리스너호르카이는 강렬하면서도 독특한 음역을 가진 몽상가적 작가"라며 "갑자기 낮설면서 동시에 소름 끼치도록 웃긴 장면을 만들어 낸다"고 평했다.

지난 1954년 루마니아의 국경 인근 헝가리 남동부에서 태어난 라슬로는 부다페스트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했다.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지만 독일 유학을 거쳐 이후 프랑스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를 오가며 창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작으로 '사탄탱고', '저항의 멜랑콜리', '전쟁과 전쟁', '마지막 늑대', '세상은 계속된다' 등이 있다. 그 가운데 '사탄탱고'는 라슬로의 문학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소

설로 정평이 나 있다. 공산주의가 붕괴된 80년대 헝가리의 집단농장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가난 속에서 허우적이는 마을에 1년 전 사라졌던 인물이 돌아오면서 사람들은 가난과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는다. 그러나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람들은 짓눌린다. 작가는 절망에서 탈출하려 하지만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비극의 상황을 하나의 목시화처럼 그렸다.

수산 손택은 라슬로의 작품에 대해 "현존하는 목시록 문학의 최고 거장"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한편 에스24는 노벨문학상 발표를 기념해 이벤트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라슬로 작가를 '관심작가'로 알림 신청을 하거나, 이벤트 내 축하 댓글을 남기는 회원 각 500명을 추첨해 YES포인트 1000원을 증정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언젠가 봄날에

놀이패 '신명' 오월마당극
15~16일 5·18기념문화센터



‘언젠가 봄날에’ 한 장면.
〈놀이패 신명 제공〉

광주의 아픔을 고통과 해학으로 어루만지는 마당극이 다시 무대에 오른다.

놀이패 신명(대표 정찬일)의 오월마당극 ‘언젠가 봄날에’가 오는 15~16일, 오후 3시와 7시 30분 하루 두 차례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 무대에 오른다.

‘언젠가 봄날에’는 2010년 5·18광주민중항쟁 30주년을 기념해 초연된 이후 500여 회의 공연을 거치며 지역과 전국을 순회한 놀이패 신명의 대표작이다. 1980년 5월의 행방불명자와 남겨진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국가폭력의 상처와 시민의 존엄, 그리고 기억의 힘을 담았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에 선정되며 내용과 형식 모두 새롭게 단장했다.

이야기는 늙은 무당 박조금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고향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 앞에 암매장된 시민군과 여고생, 백구두의 영혼이 나타난다. 이들은 세상을 떠난 지 45년이 지났지만 아직 저승으로 가지 못한 채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져 가는 5·18을 한탄한다.

영혼들의 시선을 따라 관객은 비극의 시간을 웃음과

풍자로 마주하게 된다. 마당극 특유의 굿과 춤, 노래가 어우러지며 해원(解冤)과 상생(相生)의 바람을 무대 위에 불어온다.

이번 공연은 현재의 사회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장면이 더해졌고 의상과 소품, 악사 편성 또한 한층 강화됐다. 여기에 현장감 있는 라이브 연주가 더해지며 작품의 생동감과 완성도를 높였다.

연출은 남기성이 맡고 드라마티거 김소연, 안무 송운경, 음악 김현무, 의상 박현주가 참여했다. 배우 지정남·김호준·정찬일·강근희·백민·김혜선·노은자·문창주·김선민·유예린과 악사 김종일·김단비·김하린·최민석 등 지역 예술가들이 함께 무대에 선다.

정찬일 대표는 “5·18의 상처와 기억은 여전히 현재형이며 예술을 통해 그 아픔을 함께 치유하고자 한다”며 “굿판의 형식을 빌려 망각된 기억을 불러내고 서로의 삶을 위로하는 무대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전석 2만원(사전예매 80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브람스, 창작의 여름’ 지난 공연 모습.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공〉

낭만의 계절, 브람스 선율을 잇다

광주여성필, 내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여름의 열정이 지나간 자리, 깊어가는 가을이 그 선율을 이어받는다. 브람스의 음악이 남긴 계절의 온기가 다시 무대 위를 물들인다.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광주여성필·대표 김유정)는 오는 14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브람스, 창작의 여름’ 다섯 번째 시리즈 ‘관현악의 순간’을 선보인다.

광주여성필은 ‘2025년 지역대표 예술단체’로 선정된 이후 독일 낭만주의 거장 요하네스 브람스의 작품세계를 중심으로 여섯 편의 연주 시리즈를 이어오고 있다. 브람스가 주로 여름에 작곡한 명곡들을 무대로 옮겨 그가 남긴 ‘창작의 계절’을 오늘의 감성으로 되살리는 무대다.

첫 곡은 피아노 4중주 1번 사단조, Op. 25다. 브람스가 슈만 이후 독자적인 작곡가로 자리매김하던 시기에 완성한 작품으로 구조적 긴장감과 서정적 내면이 교차하는 명작이다. 첫 악장의 치밀한 대위법과 마지막 악장의 열정적인 리듬은 브람스 음악의 고전적 균형과 내적 불꽃을 동시에 담아낸다.

이번 무대에서는 바이올린 박승원·조국영, 비올라 권혜린, 첼로 유경진이 참여해 사중주의 정교한 앙상블을 들려준다.

이어지는 ‘세레나데 2번 가장조, Op. 16’는 브람스의 초기 관현악 작품으로 목관악기의 파스한 질감이 두드러진다. 이번 공연에서는 미국의 마르크 폴킨이 편곡한 11중주 버전으로 연주돼 색채감이 한층 풍성해질 예정이다.

무대에는 플루트 박지혜·노신영, 오보에 박해강·조연후, 클라리넷 권미라·박수현, 바순 이지형·한은성, 호른 장주연·박다경, 더블베이스 염찬미 등이 함께하며 실내악의 세밀한 호흡과 관현악의 깊이를 동시에 살린 구성이 기대를 모은다.

김유정 대표는 “이번 무대는 브람스가 지닌 고전적 엄격함과 낭만적 감수성을 함께 조명하는 자리”라며 “가을 저녁, 음악을 통해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브람스, 창작의 여름’ 시리즈는 오는 11월 8일 오후 5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리는 여섯 번째 공연 ‘지음지교(知音之交)’로 이어진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